

## 農地制度의 將來基準

林炳潤\*

### 農村勞賃의 雜居로 機械化 문제 擡頭

몇해 前까지만 해도 우리의 農業經營은 地域과 階層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었다고는 하나 대체로 自家勞動을 無賞視하고 堆積된 他人勞動을 低廉視하면서 勞動集約의in 耕地利用 耕種方法과 勞動吸收力이 큰 作物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勞動生產性을 희생시키는 것쯤은 우습게 여기고 과잉노동력을 아낌없이 投入하고 土地生產性의 증대만을 꾀한 것이一般的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수출증대·공업팽창으로 농촌 노동력이 大量으로 流出되고 副業기회가 확대되자 他人勞動의 품삯이 비싸진 동시에 自家勞賃의 評價도 雜居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78년 가을의 품삯은 77년의 가을에 비해 30~50%나 올라 3식과 2간식을 제공하고도 남자 3,000~3,500원, 여자 2,000~2,500원이었는데도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 가을농사가 困難하였었던 것이다. 3식과 2간식을 現金으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이 5,000~6,000원에 이르러 1,200평의 벼를 베는데만도 2만원 이상이 소요되었었다. 가래질 뜻자리, 모심기, 紿水, 農藥 및 肥料撒布, 除草, 打作 등의 労動까지 합치면 생산비 가운데서 차지하는 勞力費는 엄청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勞動力不足=勞賃등귀는 단순한 要因변동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韓國의 農業經營이 전혀 새로운 事態에 直面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事態에 適合한 活路를 打開치 않고서는 그 經營이 더욱 困難해질 것 같다. 그 對備策으로 흔히 들고 있는 것인 大型農機具의 도입이라 함은 周知하는 바이다. 大型農機具의 物理的 性能이 農村노동력의 감소를 相殺하고도 남는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個別농가의 經營규모와 經濟力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울 것 같아 한편으로는 大型農機具도입의 土地條件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非土地條件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부연하면 耕地整理가 이미 완비된 農地일지라도 個別농가의一般的인 經營규모로 보아서는 大型農機具의 利用日數가 작아 固定費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므로 農地所有규모의 制度上의 限度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農機具의 生産·도입·利用방법을 개선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農機械企業에 대한 政策的 支援 필요

後者부터 살펴보면 共同利用組織의 強化, 協業化的 촉진, 도입사용주체인 農家에 대한 補助

\* 高麗大農大教授, 經濟學博士, 高麗大附設 세마을研究所長.

金支給 및 低利融資를 실시하는 것이 그 主要內容이다. 그리고 또 農機械企業에 대하여 生產性向上 支援金을 支給하여 지금까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價格으로 性能좋은 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의 零細性, 경제력의 不足, 農機械利用率의 低位性을 극복하기 위해서 共同利用組織을 강화하고 生產의 협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個別농가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급한다든가 低利資金을 융자해서 農機械의 도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方法은 그 값이 비싼 限 補助金이나 低利融資가 恒久化되기 쉽고 보급이 局限되기 쉬우며 經營上의 實効가 적어지기 쉽다는 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農機械企業에 대하여 政策的으로 技術進步를 꾀하도록 支援金을 支給하는 것이 有利할 것 같이 생각된다. 이 方法은 처음에는 비록 많은 金額이 投入되어야 한다는 難點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경영규모의 농가에게 보급속도가 빠른데다가 經濟力이 弱한 농가들까지도 손쉽게 購入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뿐만 아니라 一回限의 支援金으로 그치는데다가 그 經費가 누구에게歸着되는 궁극적으로는 節減될 수 있을 것 같다.

### 農機械의 有機的 체계화 필요

새삼스럽게 再論할 것도 없이 農業固定資產額 가운데서 農機械投資의 比重이 커지면 커질수록 過剩投資의 위협이 커지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農機械產業의 技術進步를 달성해야만 農業생산이 널리 기계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계화로 말미암아 農業經營이 받게 되는 重壓도 작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農機械는 農業勞動不足을 극복하는 면과 함께 농가, 農협, 정부가

운데서 누가 負擔하는 減價償却, 金利負擔 등의 原價計算을 엄밀하게 하고 資源을 國民經濟의 으로 有効하게 使用해야 한다는 觀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見解를 강조하는 것이다.

값싸고 性能좋은 農機械의 공급과 더불어 農機械의 有機的 체계화를 추진해야 勞動力を 더욱 節減할 수 있다는 點도 지적하여 두겠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한 두 作業과정의 기계화는 勞動節約效果가 매우 限定되어 있다. 그래서 그와 前後의 作業과정을 기계화해야 기술체계로서 完成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作業과정이 기계화되었다 해도 그와 관련된 部分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체계로서 확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畜產, 果樹 등의 기계화도 併行해야

그리고 또 한 部門의 기계화에 그쳐 있는 상태에서는 勞動節約效果가 매우 작다는 사실을 부연하여 두겠다. 이를테면 稻作部門이 기계화될 때 畜產, 果樹, 야채部門의 기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동안 畜產分野에서 技術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예컨대 新形式의 畜舍, 新畜種의 도입, 人工受精에 의한 生產育成, 速成肥育에 의한 飼養管理 등의 新方式이 채용 보급되었다.

果樹部門에 있어서도 隔年結果가 剪定方法의 개선으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計劃的 密植(當初에는 樹間距離를 좁게 密植했다가 果木의 成長에 따라 間拔해 가는 것), 摘果(商品價值가 큰 과일만을 生산하기 위하여 成熟시키는 과일수를 제한하는 것) 같은 기술이 개발되었다. 야채部門에서도 技術의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稻作기술의 발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 政府가 발표한 長期계획에서도 主穀생산의 기계화에 總力を 기울이고 있으므로 畜產, 果樹, 야채 따위의 생산의 기계화는 상대적으로 더욱 不振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主穀생산의 기계화에 의하여 勞動이 節減되어도 需要가 急增되고 있어서 生產이 急增되어야 할 畜產, 果樹, 야채部門에서 勞動이 節減되지 않는다면 全體勞賃節減効果는 기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크지 않게 될 것 같다.

### 勞動節約型 品種 開發도 必要

勞動의 節約이라는 절실한 문제를 다루는 이 기회에 기계화에 놓지 않게 勞動節約效果가 있는 品種에 관하여 한마디 言及하여 두겠다. 당장 成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아 지금의 우리의 品種은 勞動集約的인 것 인바 이로부터 脫皮하는 品種을 오랜 時間과 큰 費用이 걸리더라도 開發을 해야 할 것이다.

몇몇 品種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農산물 품종이 多收穫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勞動力이 大量으로 投入돼야 한다는 것을 지극히 가볍게 생각하며 오직 段當 收穫量이 많은 것만을 重視하고 品種개발을 추진해 왔었다 해도 過言이 아닐성 같다. 勞動力과 임시대에는 勞動集約의 品種이라 해도 生產費 가운데서 労力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시답지 않았었고, 따라서 多收穫만 거두면 그것으로서 農業經營과 國民經濟의 利益은 서로 兩立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勞動力不足 시대에는 多收穫을 목적으로 하되 勞動粗放의 品種을 새로 개발하여 投入要素의 結合比率을 일대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테면 마을단위로 한 두가지 少數 早生種을 작부하여 自家勞動의 利用日數를 상대적으로 작게하고 他人勞動의 依存度를 不當

하게 높여 전체적인 일손不足과 勞賃등귀를 加速化시켜 온 方法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 作付體系 고쳐 自家勞動 이용 늘려야

벼의 品種이 한 두가지의 早生種에 集中되어 있으면 다른 作目들도 그에 따라서 同一한 適期의 少數作目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自家勞動의 利用日數가 적고 他人勞動의 依存度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체의 自給可能한 生產資材의 利用日數까지 적어지는 계단이 不可避해 진다. 반대로 農牛 및 農機具의 貨貸料, 金利, 구매해야 할 資材欲 따위가 비싸져 生產費를 압박하게 된다.

농가마다 稲作部門에서 早生種, 中生種, 晚生種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작부하여 우선 自家勞動과 自給生產資材의 利用日數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他人勞動·他給資材의 依存度를 최소한으로 줄여 다른 部門까지 그에 따르도록 하는 方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生產과정과 함께 流通·加工과정의 기계화도 추진해야 하겠다. 主穀이니 成長農產物이니 가릴 것 없이 流通·加工과정이 기계화되어야 그 것이 生產과정의 變革에도 큰 충격을 加하게 된다.

### 農機械값 싸면 上限制 철폐不要

勞動費壓迫의 해소책으로서 生產의 기계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한 두 部門이나 作業과정에 그쳐서는 큰 實効를 거둘 수 없으며 비싼價格으로 공급하여 고식적인 方法으로 管理運用한다면 널리 보급될 수 없을 뿐 더러 固定費부담이 오히려 經營을 壓迫하게 된다. 따라서 性能 좋은 기계를 값싸게 生產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農機械產業의 技術進步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經營 규모가 작고 經濟力이 弱한 農家에게도 보급될 수 있게 하고 固定費負擔을 極少化해야 할 것이다.

固定費負擔을 極少化할 수 있는 農機械를 조달할 수 있게 되면 굳이 農機械의 操業度증진을 위한 새로운 農地制度를 마련할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農機械값이 비싸서 固定費負擔이 크다면 당연히 操業度를 증진시켜 그것을 輕減케 하기 위해서도 現行 上限線인 3정보를 확대하고 그에 따르는 地主·小作制의 復活도 어느 面에서는 不可避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기계화에 따르는 地主·小作制와 大經營 문제는 固定費경감이라는 利點이 있기는 하나 가령 그것을 制度的으로 용인하더라도 순수경제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가가 疑問인데다가 國民經濟的으로 보아 큰 不利點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두고 싶다.

#### 小作制, 大經營에는 不利點도 많아

自作農이 支配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國內의 農業生產을 통한 食料의 安定된 공급으로 國民生活 내지 國民經濟의 安定的發展을 실현하는

동시에 國際收支의 不安을 제거하게 되는 것임기도 하다. 이를테면 일체의 價格은 끊임없이 등귀도 하거나와 하락도 하게 되는 것인데 價格이 下落될 경우의 地主·小作制나 大經營은 自作農보다 훨씬 기민하게 生產의 축소反應을 나타낸다. 즉 價格下落→地代 또는 利潤감소→投資의 축소와 資本의 이동→生Production의 감축운동을 서슴치 않고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現在에만 局限치 말고 5년 10년 후의 將來까지 視野를 넓혀서 우리의 經濟를 보고 생각한다면 農機械보다는 農地가 오히려 稀少財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稀少財인 農地를 어떻게 하면 効率的으로 利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觀點에서 地主·小作制의 是非曲直을 가려야 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經濟力 水準에서 보아 農地보다는 農機械가 稀少財라고 해서 農機械의 利用度만을 重視하고 農地의 効率的 利用은 輕視하는 農地制度 즉 地主·小作制의 용인이나 大經營第一主義는 우리의 將來 工業生產力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에서 나온 구상이라고 말하고 싶다.